

“고전 속 인물 통해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 찾았으면”

최진석(사)새말새물짓 이사장(서강대 철학과 명예교수)은 책읽기를 '마법의 양탄자'를 타는 일이라고 말한다. 하늘을 나는 용단에 몸을 싣고 '다음'을 향해 가는 상상력과 창의력을 키우는 힘, 현재에 머물지 않고 늘 질문을 던지며 '건너가기'를 가능케 하는 힘을 길러주는 게 바로 '책 읽기'라는 설명이다.

지난 2020년 고향 함평에 '호접몽가'를 지은 최교수는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를 본격적으로 질문을 던지는 '단체 새말새물짓'을 만들었다. 그리고 첫 사업으로 '책 읽고 건너가기'한 달에 한 권 '책 읽기'를 시작했다.

광주일보 2020년 7월1일부터 2021년 4월까지 파트너가 돼 매월 첫날 최교수가 선정한 '이달의 책'을 발표하고 최교수의 독후감을 실었다. '어떤 책을 읽을까' 늘 고민했던 이들에게는 길라잡이가 됐고, 그가 권하는 책을 이미 읽었던 사람들에게는 작품에 대한 '또 다른 시선'을 제공했다.

최교수는 또 '책 읽고 매출의 신이 되다'라는 책을 낸 '책 읽는 개그맨' 고명환과 유튜브 북토크를 진행, 작가와 책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들려줬다.

최교수가 최근 펴낸 '나를 향해 걷는 열 걸음-단 하나의 나로 살게 하는 인생의 문장들'(열림원 간)은 1년 여간 함께 읽은 10편의 고전문학을 다룬 책이다. 광주일보에 실렸던 독후감과 고명환과의 토크를 묶었다.

함께 읽은 책은 '돈키호테', '어린왕자', '페스트', '데미안', '노인과 바다', '동물농장', '걸리버 여행기', '이승우화', '아Q정전', '장미꽃' 등 10편으로 시대를 초월해 사랑받는 고전작품들이다.

선정된 책은 모두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떻게 살다 가고 싶은가,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죽기 전에 완수해야 하는 내 소명은 무엇인가." 등 끝없이 질문하게 하는 작품이다. 또 책속에 등장하는 주인공들은 "자기를 지키는 사람들, 자기를 함부로 내버려두지 않고 끝없이 질문하며



최진석 교수

탐색하는 인물들"이다.

첫 번째 책은 세르반테스의 '돈키호테'였다. "진짜 인간은 한 곳에 멈춰 머무르지 않고 아무 소득이 없어 보여도 애써 어디론가 떠나 건너가는 자이고, 불가능해 보이는 꿈을 꾸고, 닿지 않는 별을 잡으려하는 자가 진짜 인간"이라고 생각해 선택한 책이다.

"사막이 아름다운 건 어딘가 우물이 숨어 있어서 그래"라는 '어린왕자' 속 대화를 통해서도 "나에게 우물은 무엇인지, 나의 우물은 도대체 내 속

최진석 새말새물짓 이사장 '나를 향해 걷는 열 걸음' 출간

광주일보와 함께 읽은 '돈키호테' '어린왕자' 등 10편 27일 순천시 북토크 열려

어디에 숨어있는지' 한번쯤 생각해 보자는 질문을 던진다. 갑작스레 닥친 코로나 시대를 맞아 선택한 책은 "역사적 사실을 철학적으로 포착해 문학적으로 승화시키는 글쓰기를 하는" 카뮈의 '페스트'였다. 그는 "의지와 긴장을 가지고 타자를 마음으로 사랑하는 게 이 시대에 필요한 행동"이라는 고명환의 말에 "긴장의 출발은 자기 자신에 대한 긴장, 즉 스스로 페스트에 갇혀 있지는 않은지를 긴장해야 하는 것"이라고 덧붙인다. 84일 동안 고기를 한마리도 잡지 못했지만 결코 도전을 멈추지 않았던 헤밍웨이 소설 '노인과 바다' 속 주인공에게서는 "겉으로 아무리 껴져도 심장 가까이 파고 들어가 그 안의 무엇을 찾아내고 성취하기 위해 치열하게 투쟁해야 함"에 대해 배운다. 한편 오는 27일(오후 5시) 순천 연경인문문화예술연구소에서 최진석 교수 초청, '나를 향해 걷는 열 걸음' 북콘서트와 열릴 예정이다. 북콘서트 수익금은 보호종료 청년들을 위한 일에 쓰일 예정이다. 문의 010-3638-6381.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사운드 제작을 위한 음향 테크니션 양성 광주시립미술관 '지맵' 운영

광주시립미술관 광주 미디어아트플랫폼 G.MAP(지맵/Gwangju Media Art Platform)은 '사운드 제작을 위한 음향 테크니션 양성과정'을 운영한다.



임주신 대표

이번 과정은 사운드 제작 관련 전공자 및 중사자들을 대상으로 기본적인 사운드 제작과 녹음 기술 등을 교육함으로써 창작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진행된다.

광주미디어아트플랫폼 녹음스튜디오 및 편집실에서 오는 16일부터 9월 17일까지 한 달간 운영된다. 교육은 주중반(화요일)과 주말반(토요일) 각 5명의 수강생이 정원이며 4차시로 구성된다. 수강생 모집은 선착순 전화 접수로만 가능하며, 수강료는 무료이다.

이번 교육과정의 초청강사는 임주신(Bay스튜디오 대표, 음악감독), 박상범(국립아시아문화전당 창작제작센터 음향감독)이며 각각 주중반과 주말반을 담당한다. 강의 수강자에게는 G.MAP 녹음 스튜디오 및 편집실 이용 권한을 부여하며, G.MAP 주관의 다양한 행사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문의 062-613-6124-5.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ACC 대학생 오월 사적지 삽화 공모전'

곽영아 작 '그때부터 지금까지' 대상

'최우수상' 김지홍 '불꽃처럼...' '우수상' 김가인 '금남로 ...'

'ACC 대학생 오월 사적지 삽화 공모전'에서 전남대 정문을 주제로 그린 곽영아 씨의 '그때부터 지금까지'(사진)가 대상에 선정됐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전당장 이강현)이 올해 처음 개최한 이번 공모전은 역사성과 작품성 등을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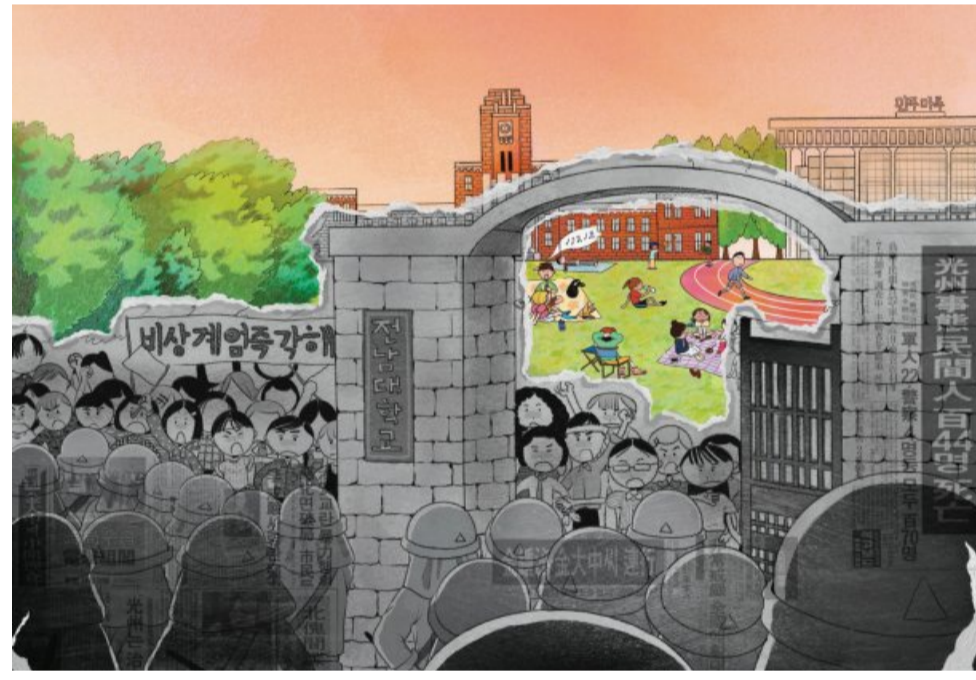
최우수상에는 들불야학 엠티를 담아낸 '불꽃처럼 살다간 광주의 영웅들(김지홍 작)'이 뽑

혔다. 아울러 우수상에는 김가인의 '금남로, 민주의 행진', 장려상에는 위지원의 '남동성당'이 선정됐다.

ACC는 지난 8일 시상식을 개최했으며 수상자들에게는 총상금 380만원을 지급했다. 또한 작품은 ACC의 오월 역사 교육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한편 ACC는 5·18민주화운동의 가치를 확산하기 위해 이번 공모전을 마련했으며 수상작은 ACC 누리집 내 디지털 교육콘텐츠 '오월스토리 퍼즐'에서 만나볼 수 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문화다양성 인식확산

광주문화재단, 사진 공모전

지구촌 곳곳에서 민족과 인종, 국적과 지역 등으로 간 다른으로 인해 본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서로 다름을 인정하는 자세와 미덕이 어느 때보다 요구되는 상황이다.

광주문화재단은 문화다양성 인식확산을 위한 사진 공모전을 개최한다. 오는 30일(오후 6시)까지 진행되는 공모전은 문화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하자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합성이나 편집되지 않은 미발표 사진을 대상으로 하며 응모자격은 국내 거주자면 누구나 가능하다. 공모요강을 참조해 신청서와 함께 마감일까지 이메일 접수하면 된다.

출품 형식은 필름(흑백 또는 컬러) 스캔파일 또는 디지털 파일(jpg와 jpeg 형식)로 3000픽셀 이상의 해상도여야 한다. 단체는 출품이 불가하며 개인 1인당 1작품으로 출품 개수가 제한된다.

시상은 대상 1점 100만원, 금상 2점 70만원, 은상 3점 50만원 등이며 결과는 10월 중 문화재단 홈페이지 공고와 개별 통보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문화재단 홈페이지 참조.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콘서트 오페라 '무등등등'

작곡가 김선철·미디어아티스트 이이남 협업... 15일 전일빌딩245

'오페라와 미디어 아트의 만남.' 작곡가 김선철과 미디어아티스트 이이남 작가의 협업으로 이뤄진 콘서트 오페라 '무등등등'이 오는 15일 오후 7시30분 전일빌딩245(8층 다목적홀)에서 열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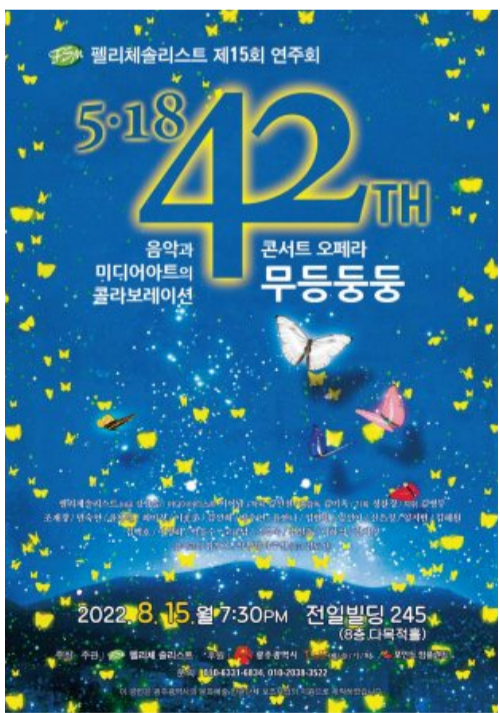
이날 공연은 지난 2018년 창단한 펠리체 솔리스트(대표 강양은) 주최로 열린다.

작품은 '의(義)의 뿌리를 이룬 동학혁명'부터 가슴 아픈 우리 시민들의 이야기인 5·18 민주화 운동까지의 시대정신과 계층없는 무등(無等)의 세계와 민주화 염원을 담고 있다. 이번에는 광복절에 공연을 볼 수 있어 더욱 뜻깊다.

이번에 7회째를 맞은 '무등등등'은 5·18 민주화운동을 주제로 한 조태일의 '겨울 소식'과 김준태 '아아, 광주여!', 이도훈 '5월 농부가' 등을 포함해 총 18편의 시로 꾸려졌다. 광주 5·18 민주화 운동과 8·15 광복절로 양 날개를 이룬 나비는 의(義)의 부활이라는 상징을 담고 있으며, 이이남의 미디어영상이라는 시각적 표현과 오페라라는 음악적인 결합이 콜라보를 이뤄 관객들의 상상력을 더해줄 것으로 기대된다.

공연은 '임을 위한 행진곡', '겨울소식' 서곡으로 시작해 1막 '새야 새야 파랑새야', '우금치 흙', '황토길', 2막 '금남로 사랑', '대동세상, 진도아리랑', '광주만가' 등으로 이어진다.

'풀씨', '광주여 영원하라', '함께 가자 우리의 이갈을'을 끝으로 마무리 된다.



김미옥 총감독이 해설을 맡았으며 조재경(아버지), 민숙연(어머니), 윤병길(아들), 최미정(딸)·이호준·김선희·박수연·윤하나·임현진 등이 무대에 오른다. 또 양상블 마주얼 등 역량을 갖춘 음악가들이 출연한다. 전석 2만원. 문의 010-2035-3552.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대한민국 소극장열전' 광주서 감동 마무리

구미·춘천·부산·대구·전주·서울 등 지역대표 극단 공연



관객상을 수상한 관람객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한민국 소극장열전 제9회>

구미, 춘천, 부산, 대구, 전주, 서울 그리고 광주. 각 지역을 대표하는 극단들이 펼치는 '제 11회 대한민국 소극장열전'이 폐막식을 끝으로 일주일 간의 여정을 끝마쳤다.

8월 1일부터 7일까지 뜨거운 여름날 광주에서 펼쳐진 지역 극단들의 무대는 소극장 공연을 찾아보기 힘든 광주시민들에게 큰 감동을 선사했다.

광주 푸른연극마을의 '노인과 바다'를 시작으로 구미 극단 문화창작집단 공터다 '타이피스트', 춘천 극단 도모 '가정식백만 맛있는 먹는법', 부산 공연예술창작집단 어니언킹 '해안도로', 대구 극단 한울림 '뫼생김 남자', 전주 극단 빈칸 '카모 마일과 비비맨', 서울 극단 공상집단 뚝뚝지 '후산부, 동구씨'까지. 좀처럼 지역에서 보기 어려운

지역대표 극단들의 공연으로 공연장인 씨어터연 바람과 예술극장 통은 일주일 내내 관람객으로 붐볐다. 이 밖에 지역 문화예술에 대한 주제 토론회 등도 진행됐다.

'제 11회 대한민국 소극장열전'은 7일 폐막식을 끝으로 막을 내렸으며, 극단 한울림의 이지영이 최우수 연기상을 수상했다. 신인연기상에는 극단 구미의 위유정, 최고인기상은 극단 도모의 원소연이 수상했다.

특히 이번 소극장열전은 7일간 1일 1연극으로 모든 작품을 감상한 3명의 관객에게 관객상이 수여됐다.

'제 12회 대한민국 소극장열전'은 전주에서 개최된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